

2018년 파울로 국제콩쿠르 우승으로 차세대를 이끄는 첼리스트로 부각된 브래넌 조(26)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나움베르크 국제 콩쿠르, 카사도 국제 콩쿠르에서도 수상한 한국계 첼리스트로서, 헬싱키 필하모닉,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브뤼셀 필하모닉, 리에주 로얄 필하모닉, 보스턴 시립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펼쳤으며 2019년 금호아트홀에서 한국 관객들을 만났다.

2019년 카네기홀에서 성공적인 데뷔로 주목받은 브래넌은 안네 소피 무터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2019년 이반 갈라미안 상, 2020 야누스 스타커 상과 Landgraf von Hessen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상을 수여받았고 2021년에는 콘서트하우스 베를린 데뷔 리사이틀 등이 예정되어 있다.

실내악에도 열정적인 브래넌은 기돈 크래머, 안네 소피 무터,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조슈아 벨을 포함한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고, 말보로 뮤직 페스티벌,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Chamber Music Connects the World', 프러시아 코브 페스티벌 등에 참가하였다.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난 브래넌은 노스웨스턴 대학교 비에넨 음대의 한스 예르겐 옌센과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로렌스 레서를 사사했고 현재 크론베르크 음악원의 프란스 해머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다. 브래넌이 사용하는 첼로는 1668년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만들어진 유서깊은 안토니오 카시니이다.